

# 2021 한국문학탐방 I

## 발표 자료집

경상북도 안동, 울진  
강원도 강릉, 인제



# 2021 한국문학탐방 I

## 발표 자료집

2021.05.13.~14.

경상북도 안동, 울진  
강원도 강릉, 인제





## 목차

### (1) 기본 사항

2021 한국문학탐방   탐방단 구성 .....	7
2021 한국문학탐방   버스 자리표 및 숙소 배정표 .....	8
2021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	9
2021 한국문학탐방   탐방 지도 .....	10
2021 한국문학탐방   탐방지 주소록 .....	11
2021 한국문학탐방   일일 보고서 .....	12

### (2) 조별 발표문

#### ◎ 1조-정철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정철의 생애 .....	14
[인문학부 20211100 최은실]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정철의 작품세계 .....	16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정철의 대표작 「관동별곡」 .....	17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관동별곡의 한 조각, 망양정 .....	18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정철, 평가와 의의 .....	20

#### ◎ 2조-이항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퇴계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퇴계 이항의 생애 .....	2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도산서원 그리고 도산십이곡-퇴계의 도산서원과 도산십이곡의 연관성 .....	23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 도산서원, 퇴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안동 지역 퇴계 이항 관련 유적, 기념관 소개 .....	24
현장 사진 자료 .....	26

◎ 3조-하회별신굿

[인문학부 20211012 김가은] 세계 유네스코 안동 하회마을-안동 하회마을 소개 ..... 27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풍자와 해학의 탈놀이-하회별신굿의 기원과 내용 ..... 31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 안동하회마을 하회탈-하회탈의 종류와 특징 ..... 33

[국어국문학전공 20191018 김서연]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탈놀이-하회별신굿 탈놀이의 가치  
..... 37

◎ 4조-이육사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20211073 이정은]  
이육사-이육사, 이육사문학관, 이육사 생가, 작품, 문학사적 의의 ..... 39

◎ 5조-허균, 허난설헌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9 박유진, 인문학부 20211026 김재중]  
허균, 허난설헌-허균의 생애, 작품, 홍길동전 줄거리,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 허난설헌의 생애,  
작품, 작품세계, 답사 지역과 인물들의 연관성 :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 45

◎ 6조-한용운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한용운과 백담사 ..... 49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독립을 위해 싸운 승려, 한용운-한용운의 생애 ..... 50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한용운의 사랑을 외치는 시-한용운, 「님의 침묵」 ..... 52

[국어국문학전공 20181076 이은지] 백담사의 모습과 한용운 관련 기념관 ..... 54



(1) 기본 사항

## 2021 한국문학탐방 I 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이병기 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신서인, 이승은 교수님

학생회장 : 김상래 (010-2022-8399)

부학생회장 : 김서연 (010-2485-9901)

답사부장 : 이혜미 (010-7464-3556)

조교 : 이정민 (010-6732-7739)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인문학부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 2021 한국문학탐방 I 버스 자리표 및 숙소 배정표

### <버스 자리표>

기사님			계단	
이정민 조교				이병기 교수님
이혜미 답사부장				김명준 교수님
김모운				신서인 교수님
피승진				이승은 교수님
민세진				김상래 학생회장
엄도현				김수인
박민경				임정환
김서연 부학생회장				김승현
김준원				장연승

### <숙소 배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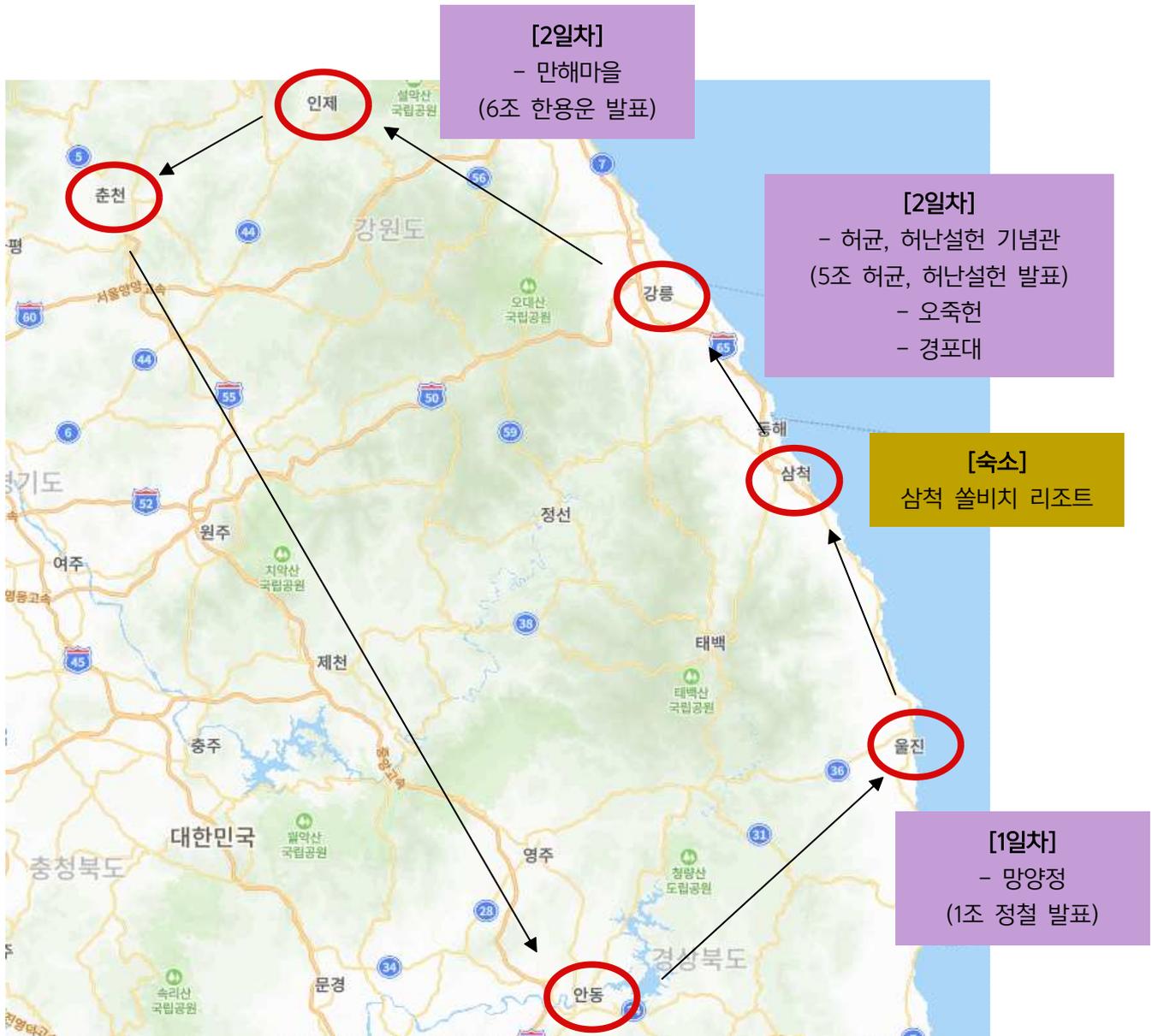
숙소 번호	숙소 배정	인원 수	합계
1	이정민(조교), 이혜미(답사부장)	2명	8명
2	김서연(부학생회장), 김모운, 민세진	3명	
3	김승현, 김수인, 박민경	3명	
4	김상래(학생회장), 엄도현, 장연승	3명	6명
5	임정환, 김준원, 피승진	3명	

## 2021 한국문학탐방 I 일정표

\*지역 : 경상북도 안동, 울진 & 강원도 강릉, 인제 일원 (숙소- 강원도 삼척)

구분	1일차 5/13(목)	2일차 5/14(금)
07	07:30 학교 집합 (대학본부)	07:30 기상
08	08:00 출발 및 이동 (3시간)	08:00 아침 식사 및 준비 (1시간 20분)
09		09:10 출발 및 이동 (1시간 10분)
10		10:20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도착 <b>[허균, 허난설헌] 5조 발표 및 관람-(30분)</b>  10:50 출발 및 이동 (10분)
11	11:00 안동 하회마을 도착 (+하회세계탈박물관) <b>[하회별신굿] 3조 발표 및 관람-(2시간)</b>	11:00 오죽헌 도착-관람(50분) 11:50 출발 및 이동
12		12:00 경포대 도착-관람(50분) 12:50 출발 및 이동
13	13:00 점심 식사 (50분)	13:00 점심 식사 (1시간)
14	13:50 출발 및 이동 (1시간 10분)	14:00 출발 및 이동 (1시간)
15	15:00 도산서원 도착 <b>[이항] 2조 발표 및 관람-(1시간)</b>	15:00 만해마을 도착 (+한국시집박물관) <b>[한용운] 6조 발표 및 관람-(1시간)</b>
16	16:00 출발 및 이동 (15분) 16:15 이육사문학관 도착 <b>[이육사] 4조 발표 및 관람-(1시간 15분)</b>	16:00 출발 및 이동 (2시간 30분)
17	17:30 출발 및 이동 (45분)	
18	18:15 울진 망양정 도착 <b>[정철] 1조 발표 및 관람-(45분)</b>	18:30 학교 도착 (대학본부)
19	19:00 저녁 식사 (40분) 19:40 출발 및 이동 (1시간)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등 답사 운영 방식 변동 가능
20	20:40 숙소 도착 (쓸비치 대명리조트-삼척)	
21	21:00 개인 정비 및 취침	

## 2021 한국문학탐방 | 탐방 지도



## 2021 한국문학탐방 I 탐방지 주소록

장소	주소	번호	기타
[관람] 안동 하회마을 (+세계탈박물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	054-853-0109	
[식사] 부네식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214-6	054-854-1758	
[관람]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054-856-1073	
[관람] 이육사문학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054-852-7337	
[관람] 울진 망양정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식사] 망양정횃집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 4리 716-5	054-783-5017	
[숙소] 삼척 쓸비치 리조트	강원 삼척시 수로부인길 453	1588-4888	
[식사] 한그릇전복물회	강원 삼척시 테마타운길 59	033-574-7088	
[관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강원 강릉시 난설헌로193번길 1-29	033-640-4798	
[관람] 오죽헌	강원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033-660-3301	
[관람] 경포대	강원 강릉시 경포로 365	033-640-4471	(지번: 저동 94)
[식사] 까막장이야기	강원 강릉시 저동길 165	033-644-7294	
[관람] 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	강원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만해수련원	033-462-2303	

## 2021 한국문학탐방 I 일일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1년 5월    일 (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b>【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b>					
<b>【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b>					

## (2) 조별 발표문

##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

### -정철의 생애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 -출생과 집안의 몰락

송강 정철은 1536년(조선 중종 31년) 서울 장의동에서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돈령부 판관 정유침이고 어머니는 대사간 안팽수의 딸이다. 맏누이가 당시 세자인 인종의 후궁으로서 숙의로 입궐하여 집안이 유복했다.

1545년(인종 1년·명종 즉위년) 정철이 10세가 되던 해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집안이 이에 연루되면서 화를 입는다. 이때 맏형과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유배가 곧 풀리지만 양재역 벽서사건(1547년)으로 인해 다시 집안에 화를 입는데, 맏형은 요절했고 송강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유배를 가게 된다.

#### -10년간의 수학, 벼슬길의 시작

1551년(명종 6년) 아버지가 유배에서 풀려나고 정철은 아버지와 담양 창평에서 살게 된다. 정철은 16세부터 27세까지 이곳에서 학자·문인을 스승으로 두고 수학하였고, 율곡 이이와 교류하였다. 17세에는 결혼을 했으며, 27세(1562년)에는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사헌부 지평에 임명된 정철은 명종의 사촌 형인 경양군의 옥사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때 명종의 부탁을 거절하여 수년간 요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 -시묘살이와 당쟁의 소용돌이

이후 여러 직책에 제수되다가 1568년(선조 1년) 33세에 이조좌랑의 요직에 임명된다. 1570년(선조 3년) 35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2년에 걸쳐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38세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다시 2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1575년(선조 8년) 40세에 정철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이 무렵 동서분당에 따른 당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철은 서인의 중심인물로서 동인과 대립하다가 율곡 이이에게 조정을 맡기고, 10년간 수학했던 담양 창평으로 낙향한다. 3년 뒤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만 당쟁이 심각한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44세에 다시 창평으로 낙향한다.

#### -관찰사 재직과 관동별곡

1580년(선조 13년) 45세에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이때 정철의 대표작 「관동별곡」과 「훈민가」가 탄생한다. 이후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는 등 여러 직책을 지내지만, 동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50세에 사직하여 다시 창평으로 낙향한다. 이 무렵 정철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1587년).

#### -복귀와 죽음

1589년(선조 22년) 54세에 정철은 우의정으로 중앙 정계에 복귀하지만, 56세에 이산해의 모함으로 다시 사직했고 강계로 유배를 떠난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유배에서 풀려난 정철은 임금을 모시게 됐지만, 1593년(선조 26년) 동인들의 공격으로 또 다시 사직한다. 같은 해 정철은 58세에 강화 송정촌에서 생을 마감한다.

《참고문헌》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

-정철의 작품세계

인문학부 20211100 최은실

송강은 자신이 생존·활동하던 당대의 문학 양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탁월한 서정의 세계를 열어 놓았다. 그가 열어 놓은 서정의 세계는, 감각적인 시선과 청신한 언어를 통해 활달·호방한 정서로, 때로는 섬세·애절한 정서로 표출된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시원스럽게 날아올라 탈속의 경지를 분방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정철은 세 가지의 내용을 작품에 담고 있다. 가장 많은 작품은 군왕과 단절된 상황에서 군주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단절의 상황을 수용하며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즐기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끊임없는 지향에도 지향적 의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출되는 깊은 정서는 많은 시조 작품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군주의 측근에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지방관으로 백성을 직접 현장에서 다스리는 일이 모두 표현되었다.

전체 80여 수의 송강 시조 가운데 30여 수가 군주(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군주에 대한 지향이 지향으로만 끝나 단절의 상황인 작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철의 현실의식 중심에는 군주가 항상 자리 잡았고, 군주는 무조건 지향하고 추종해야 할 존재로 표현되었다. 정철은 자신의 이러한 지향에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상황을 만나면 견디기 어려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고, 님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절실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조에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군왕과 우호적 관계의 지속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벼슬하던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중앙 관직에 머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방관으로 나가야 했던 경우, 자청하여 지방관으로 나아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철의 지향성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작품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확인된다. 정철은 지방관이었을 때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시조 16수를 창작하였는데, 이 가운데도 군주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 한 수 들어 있다.

정철의 시조에서 풍류적인 면모는 음주 취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자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철은 벼슬에 있으면서 자연을 만났을 때는 여유와 유희를 그 속에서 찾았으나 불우한 상황에서 자연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의 단절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더욱 절실히 지향해야 할 배경으로써 자연을 표현했다. 정철의 시조 작품에 자연과 친화하면 유교적 심성 수련을 일상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의 강렬한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 《참고문헌》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한국시조학회, 2004

박영주, 「가사 작가 인물전\_위대한 민족 시인, 송강 정철」, 고요아침, 2014

##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

-정철의 대표작 「관동별곡」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45세 되던 해(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돼 원주에 부임하여,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도정과 산수의 풍경과 풍속 등을 읊은 기행가사다. 탁월한 시상 전개와 유창한 우리말 구사로 다른 기행가사에 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시적 화자의 호방함이 잘 표출되었으며 산수에 대한 묘사가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자연의 경치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작가의 미적 체험과 상상이 더해져 새롭게 구현되었다.

「관동별곡」은 대화체를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사용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화체를 여러 작품에서 구사, 표현기법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체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펼쳤다. 또, 송강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1인칭 화자를 단일 화자로 설정하여 시적 화자의 활달하고 호방한 목소리로 말해오다가, 결사 부분에 이르러서는 꿈을 빌미로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몽중화자 ‘나’의 몽중선인 ‘꿈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 작품을 전개시킨다. 화자를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자연공간을 증층적으로 확대하면서 호방한 기개를 드러내고,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과 흥취 속에서 호방함이 표출되었다. 이는 독자들에게 관동별곡의 미적 감흥을 고조시키는 한 요소이다.

「관동별곡」은 4음보 4보격과 3음 4보격의 율격 양상이 두드러진다. 가사 장르의 율격을 바탕으로 가사와 같은 짝수 구에 유용한 수사기교인 대어나 반복으로, 우리말 언어의 특성과 묘미를 잘 살려 생동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유려한 율조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말의 어미와 조사, 어휘의 역할이 크다. 동일 구조의 어휘를 반복하고 나열하고, 동일 어미, 조사 등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배가시킨다. 음악적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사물 형용의 모함과 아름다움을 배가시켜 작품의 미적 감흥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송강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가 謫仙(적선)임을 드러낸다. ‘상계(上界)’ ‘진선(眞仙)’이었던 그는 ‘황(黃)정(庭)경(經)일(一)자(字)’를 잘못 읽어서 인간(人間)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선계의 진선임을 자처하면서도 북두성을 잔으로 삼고, 창해수를 술로 삼아 마시며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호탕한 기분을 그대로 그려냈다. 이는 송강만의 풍류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선계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도 이면에는 군왕에 대한 충성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충성심은 연군과 우국의 감정, 선정의 포부 등으로 표출된다.

「관동별곡」은 유가 사대부로서의 이념과 자연 경물을 통해 환기된 작가의 풍류가, 송강 특유의 섬세하고 뛰어난 언어로 형상되어 있다. 「관동별곡」은 후대 사람들에게 찬탄의 대상이 되었고 향유의 중요한 자료이자 창작의 원천으로 간주 된다. 이는 송강 정철의 타고난 문학적 자질을 유감 없이 발휘한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의 아름다움에 있다.

### 《참고문헌》

최상은, 「최초의 대화체 가사, <관동별곡>」, 『오늘의 가사문학』, 고요아침, 2018, 53~54p

차민숙, 「관동별곡의 형상적 특질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1, 45~49p

김용찬, 「기행의 여정과 목민관이 포부를 노래하다 <관동별곡>」, 『오늘의 가사문학』, 고요아침, 53~54p

##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

-관동별곡의 한 조각, 망양정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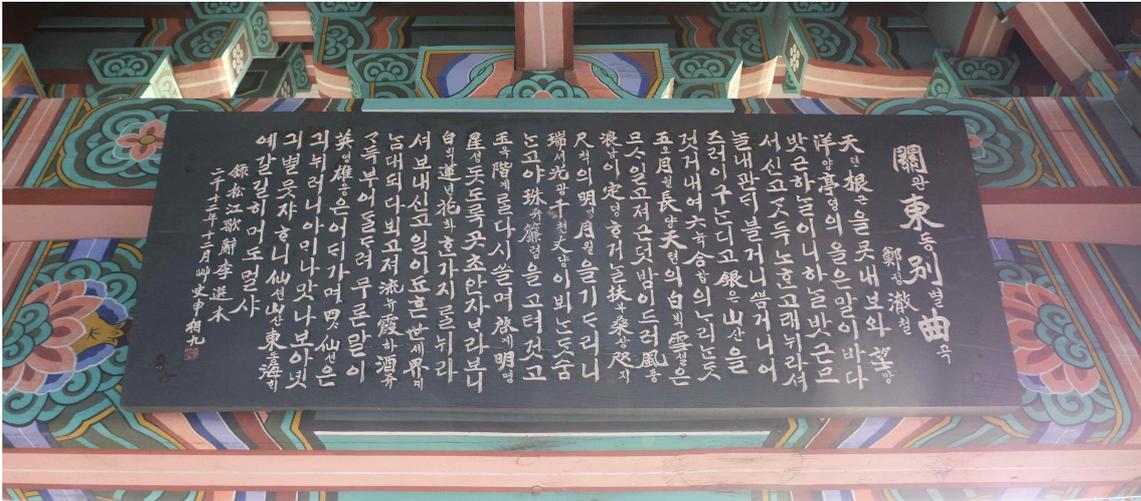
울진은 2읍 8면으로 이루어진 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 군이다. 현재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나 1963년 이전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분류되었다.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명승지를 일컫는 관동팔경에 울진에 있는 망양정이 포함되고 강원도 관찰사였던 정철이 울진에 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울진 망양정

망양정은 근남면 산포리 둔산동 해안가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구조 정자이다. 처음에는 고려시대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안가에 세워졌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러 번 수리되었다가 1858년(철종 9년) 울진현령 이희호가 군승(郡承) 임학영과 함께 현재 위치로 옮겼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주춧돌만 남아, 1958년에 울진군과 울진교육청에서 보조금과 지역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중건했다. 시간이 흐르며 비바람과 바닷바람, 지반침하로 인해 손상돼 2005년 기존 정자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건립하였다.

망양정은 관동팔경 중에서도 풍경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꼽힌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언덕 아래에는 왕이 휴양을 왔다고 전해지는 왕피천이 바다로 흘러가며, 정면에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정조와 숙종은 망양정을 소재로 어제시를 지었으며, 숙종은 친필로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고 쓴 현판을 하사했다. 이외에도 박선장, 김시습 등 다양한 이들이 망양정을 소재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정철 또한 그중 한 명이다. 1580년(선조 13년)에 45세의 나이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지은 「관동별곡」에 망양정에 들린 내용이 실려 있다. 정철은 망양정 앞바다에 몰아치는 파도를 고래와 은산, 백설로 육화해냈다.



▲망양정 내부 현판(관동별곡의 일부가 적혀있다.)

하늘 끝을 보지 못해 망양정에 올라 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노한 고래 그 누가 놀래켜서  
 불거니 뽑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오월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어느새 밤이 들어 풍랑이 잠잠켜늘  
 부상(扶桑) 가까이서 밝은 달 기다리니  
 길게 뻗친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름을 다시 걷고 섬돌을 다시 쓸며  
 샛별이 뜨도록 곧추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그 누가 보내셨나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저  
 유하주 가뜩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나  
 아무나 만나 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에 갈 길이 멀고 멀다

정철 「관동별곡」 중 일부

《참고문헌》

정무룡, 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 한국시가학회 논문, 2007, 23~24p  
 정재호,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89~90p

## 정철 <망양정에서 읽는 관동별곡>

-정철, 평가와 의의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송강 정철은 문학사에서 ‘대가’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문인이다. 정철의 문학, 그중에서도 가사 작품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도 고전 가사를 다룰 때 절대 빠지지 않은 것이 정철의 작품이다. 어쩌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

문학사적으로 송강 정철이 민족 문학의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우리 문자를 통해 생활하며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직 불교 혹은 유교의 경전이나, 교훈서 및 실용서 등 서적을 읽고 풀이하는 데에만 쓰였다. 그 언해마저도 직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우리말의 요소 중 미적인 부분이 발달하고 다듬어질 기회는 없었다. 이때 문학사에 등장한 것이 송강 문학이다. 송강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우리글로 잘 표현하지 않던 시대에 왜 우리글이 필요한지, 우리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문학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후 민족 문학은 송강 문학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정철의 문학이 한 작가에게서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운, 여러 이질적 면모가 드러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여러 해석이 있으나 그가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정철은 결코 한 작품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인이다. 장르마다 작품마다 문체와 주제와 성격이 다르다. 유교 윤리를 논하는 사대부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익살스럽게 음주를 다루거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타인과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모습 또한 자주 드러난다. 이런 점은 독자들에게 정철뿐만 아니라 문학 전체에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어준다.

송강 문학은 독자와 탐구자에게 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잘 담아내어, 사대부 시조를 바라보는 인식을 넓힐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관념을 재고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 송강 문학은 무척 중요한 자료다. 여타 사대부 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머러스함, 친근함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대부 시조에 걸맞은 작품도 있다는 것이 송강 정철만의 특색일 것이다.

### 《참고문헌》

김기영, 「<관동별곡>의 유통 양상에 대하여」, 어문연구 36, 어문연구학회, 2001, 187~208쪽  
고영화, 「松江 時調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26쪽

## 퇴계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

-퇴계 이항의 생애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퇴계 이항(李滉, 1501~1570)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로서, 본관은 진보, 자는 경호, 호는 퇴계·퇴도·도수이다. 작찬성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아들로 1501년 11월 25일 안동부 예안현 온계리(현재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태어났다. 퇴계 이항의 생애는 수학의 시기, 출사의 시기, 은거 강학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sup>1)</sup>

첫 번째 수학의 시기는 출생으로부터 33세가 되는 해까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안으로는 아버지의 죽음(2세)이라는 슬픔과 밖으로는 사화(4세, 1504, 甲子士禍)라는 죽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그는 6세에 『천자문』과 『소학』을 읽었고, 12세에 작은아버지 이우로부터 『논어』를 배워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14세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18세에 지은 「야당」이라는 시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세에는 용수사에서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주역』을 연구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는 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21세에는 허 씨 부인과 결혼하게 된다. 27세에 향시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다음 해에 진사 회시에 급제하였다. <sup>2)</sup>

두 번째 출사의 시기는 급제한 후로부터 병으로 벼슬자리를 내려놓길 원한 49세까지이다. 34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37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자 향리에서 3년 간 복상했고, 39세에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사가독서를 받았다. 중종 말년 무렵부터 관계를 떠나 산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히고, 43세이던 10월에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 삼아 사가를 청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46세가 되던 해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의 동암에 양진암을 짓고, 자연을 벗 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토계를 퇴계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았다. 끝내 퇴거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님을 알고 부패하고 문란한 중앙의 관계에서 떠나고 싶어서 외직을 지망하였다.<sup>3)</sup>

세 번째 은거 강학의 시기는 그가 50세가 되는 해 임소를 떠난 후부터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이다. 이항은 어지러운 정계를 피해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을 지어 다시금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52세에 성균관 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56세에 홍문관부제학, 58세에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43세 이후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짓고 아호를 '도옹'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명종은 예를 두터이 해 자

1) 도산서원,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main.do>. 2021.05.09.

2)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pp.23~28.

3) 이상은, 위의 논문, pp.29~34.

주 그에게 출사를 증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나 67세 때 명나라 신제의 사절이 오게 되자, 조정에서 퇴계의 내경을 간절히 바라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갔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해 그를 부왕의 행장수찬청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신병 때문에 부득이 귀향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황의 명성과 덕망이 조정과 민간에서 높아, 선조는 그를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부름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의 중임을 맡았다. 그 뒤 이황은 정이의 『사잠』, 『논어집주』·『주역』, 장재의 『서명』 등의 학문의 이치를 선조의 앞에서 강의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를 저술,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 이듬해 69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번번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간청해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고향에 돌아온 후 학문 탐구에 전심하였으나, 70세가 되던 다음 해 11월 병환이 악화하였다. 돌아가시던 날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일으켜 달라고 하여 단정히 앉은 자세로 역책<sup>4)</sup>하였다. <sup>5)</sup>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영사를 추증하였다. 장사는 영의정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산소에는 유계대로 소자연석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새긴 묘비만 세워졌다. 죽은 지 4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해 이듬해 낙성, 도산서원의 사액을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위패를 모셨고, 11월에는 문순(文純)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sup>6)</sup>

#### 《참고문헌》

도산서원,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main.do>. 2021.05.09.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pp.18~73

김승영, 「현실적 원인과 전환시대의 논리로 본 이황의 생애와 사상」, 한국동서철학회, 2010, pp.233~261.

4) 학덕이 높은 사람의 죽음

5) 이상은, 위의 논문, pp.35~46

6) 김승영, 「현실적 원인과 전환시대의 논리로 본 이황의 생애와 사상」, 한국동서철학회, 2010, pp.233~261.

## 도산서원 그리고 도산십이곡

-퇴계의 도산서원과 도산십이곡의 연관성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퇴계 이황은 선조에 만류에도 말년에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퇴계는 임금에게 수개월에 걸쳐 사직 상소를 올렸고, 나이 50세에 고향길에 올랐다. 그는 계산서당에서 지내면서, 60세가 되던 해에 노구를 이끌고 편안히 드나들 수 있으면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을 찾았다. 그런 곳에서 머물러 공부하면서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하였는데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도산 남쪽 기슭이었다. 그리고 이 산기슭 아래쪽 완만한 곳에 고산서당을 세웠다.<sup>7)</sup> 처음에 도산서원은 도산서당으로 불렸다. 도산서당에서 퇴계는 학문에 몰두하였고, 그와 동시에 무수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 후, 도산서당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산서원으로 확장, 발전되었다.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이 교육자와 학자로 있게 해주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사에서 역사적 한 획을 긋게 해준 중심적 기관이었다.<sup>8)</sup>

그런 그곳에서 퇴계는 65세에 안동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생활하면서 느낀 감흥과 다짐 등을 담아 시조를 썼는데 그것이 도산십이곡이다. 퇴계는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살고 싶다는 소망과 학문 소양에 대한 다짐을 주제로 하여 시조를 썼는데, 총 12수의 연시조로 되어있다. 전 6곡은 자연에 대한 감흥인 언지를, 후 6곡은 학문수양에 임하는 다짐인 언학의 내용을 포함한다. 도산십이곡은 자연에 동화된 감흥과 학문수양에 임하는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는 도산서원에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한 시조이다.

이처럼 안동의 도산서원과 도산십이곡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퇴계는 고향인 안동에 많은 애정을 가졌다. 그런 안동에서 은거 생활을 하기 위해 1543년 이후부터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도산서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도 지으면서 생활했다. 그런 생활에서 나온 연시조가 도산십이곡이다. 그 속에는 자연 동화에 대한 감흥, 학문수양의 의지, 연군의 정, 벼슬살이의 반성 등 당시 퇴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이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퇴계가 도산서원을 세우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sup>9)</sup>

### 《참고문헌》

도산서원(퇴계선생약사),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bbs/view.do?bIdx=700056&ptIdx=806&mId=0203000000>, 2021.05.08

이상해 (2001),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연구원, pp.57

최성욱, "[休]700리 구도의 여정..인문학 걷기 여행 '퇴계 귀향길' 코스",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10420110848664>", 2021.05.07.

7) 최성욱, [休]700리 구도의 여정..인문학 걷기 여행 '퇴계 귀향길' 코스, 서울경제, 2021, <https://news.v.daum.net/v/20210420110848664>, 2021.05.07.

8) 이상해 (2001),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연구원, pp.57.

9) 도산서원 (퇴계선생 약사),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bbs/view.do?bIdx=700056&ptIdx=806&mId=0203000000>, 2021.05.08.

## 도산서원, 퇴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

-안동 지역 퇴계 이항 관련 유적, 기념관 소개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마친 후인 1574년 봄에 퇴계의 제자들과 온 고을 선비들이 “도산은 선생이 도(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당 뒤로 두어 걸음 나아가 땅을 개척해서 짓기로 하여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도산서당 뒤편에 창건되었다.<sup>10)</sup>

도산서원은 주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배향공간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육 시설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門)과 중앙의 전교당(典教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동과 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동쪽 편에 있는 도산서당 건물을 ‘박약재(博約齋)’와 서편 건물을 ‘홍의재(弘毅齋)’라 하는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중앙의 전교당은 강학 공간과 원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편으로는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배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셔놓은 상덕사(尙德祠)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부속건물로는 서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고직사(上庫直舍)가 있으며, 홍의재 뒤편에 있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궁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의 영역으로 나뉜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에 설립된 유물전시관인 ‘옥진각(玉振閣)’이 있는데,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sup>11)</sup>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서원 내 상덕사(尙德祠)에서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향사례(享祀禮)가 치러지고 있다.

###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을 마친 후인 1574년 봄에 퇴계의 제자들과 온 고을 선비들이 “도산은 선생이 도(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당 뒤로 두어 걸음 나아가 땅을 개척해서 짓기로 하여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도산서당 뒤편에 창건되었다.<sup>12)</sup> 도산서원은 주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배향공간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육 시설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門)과 중앙의 전교당(典教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동과 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동쪽 편에 있는 도산 서당건물을 ‘박약재(博約齋)’와 서편 건물을 ‘홍의재(弘毅齋)’라 하는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중앙의 전교당은 강학 공간과 원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편으로는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배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셔놓은 상덕사(尙德祠)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부속건물로는 서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고직사(上庫直舍)가 있으며, 홍의재 뒤편에 있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궁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의 영역으로 나뉜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에 설립된 유물전시관인 ‘옥진각(玉振閣)’이 있는데,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

10) 이상해,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映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퇴계학 연구원, 2001, pp.526.

11) 이상해, 위의 논문, pp.520.

12) 이상해, 위의 논문, pp.526.

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sup>13)</sup>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서원 내 상덕사(尙德祠)에서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향사례(享祀禮)가 치러지고 있다.

### -도산서당

도산서당은 남향이며, 세 칸 제도를 따른 건물이다.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방 한 칸은 완락재,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헌이다. 완락재란, 주자의 명당실기에 “완상하여 즐기니[樂而玩之] 족히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 [固足以終吾身而不厭]”는 말에서 취해 명명한 것으로, 퇴계 선생이 거처하던 방이다. 퇴계는 완락재에 서가를 꾸며 천여 권의 서책을 두고 화분, 책상, 연갑, 지팡이, 침구, 돛자리, 향로, 혼천의 하나씩을 남쪽 벽 근처에 두었으며, 후벽의 가로지른 칸에는 옷상자와 편지 보관함을 두었고 이밖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한다. 퇴계는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서 태어나서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이 없으면서도 산림 경관을 둘러보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고 하였다. 앞의 말씀을 통해 퇴계가 만년에 산림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도산서당의 완락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또한, 퇴계는 완락재 실내 남쪽으로 침소를 마련하였는데, 침소가 있는 자리 서쪽에는 서가를 설치하지 않고 그곳을 벽으로 처리하여 그 뒤를 비워 놓았다. 퇴계는 이렇게 서가를 꾸민 것에 대해 “이곳은 내가 누워 자고 기거하는 곳으로 성현의 경훈(經訓)<sup>15)</sup>을 등 뒤에 두는 것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완락재의 건축 설계에는 퇴계의 경전에 대한 공경심이 나타나 있음이 드러난다.<sup>16)</sup>

### -농운정사

농운정사는 여덟 칸짜리 건물로서, 퇴계의 제자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건물이다. 퇴계는 시습재(時習齋), 지속료(止宿寮), 관란헌(觀瀾軒)을 합하여 농운정사(雲精舍)라는 현판을 달았다. 농운정사라는 이름의 ‘농운’은 산마루에 모여드는 구름처럼 제자들이 모여드는 형국을 일컫는 말이다. 퇴계는 농운정사의 건물을 공부를 뜻하는 ‘공(工)’자 모양으로 지었는데, 공부하는 방을 시습재라 부르고, 잠자는 방을 지속료라 불렀다. 농운정사의 남쪽 마루를 관란헌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마루에서 낙동강의 푸른 물을 굽어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sup>17)</sup>

### 《참고문헌》

이상해,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퇴계학 연구원, 2001, pp.520~535.

박균섭, 「도산서당 연구 : 교육공간의 구조와 성격」,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1, pp.270~273

13) 이상해, 위의 논문, pp.520.

14) 박균섭, 「도산서당 연구 : 교육공간의 구조와 성격」,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1, pp.270.

15) 옛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 이름의 총칭으로, 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쓴 서적.

16) 이상해, 위의 논문, pp.535.

17) 박균섭, 위의 논문, pp.273.

## 현장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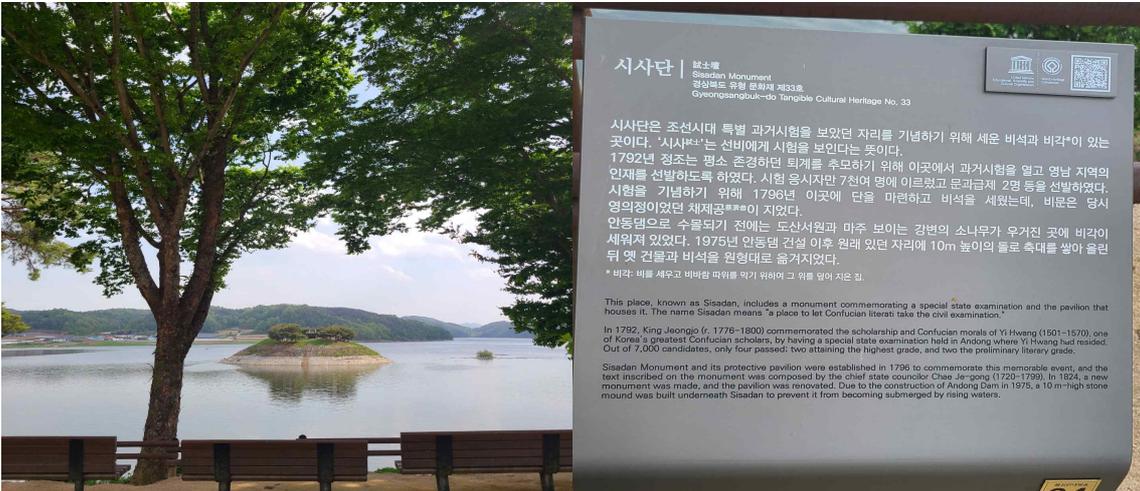
### <도산서원 정문>



### <전교당>



### <시사단>



시사단 | 試士壇  
Sisdan Monument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33호  
Gyeongso-sangbuk-do-olol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3

시사단은 조선시대 특별 과거시험을 보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이 있는 곳이다. '시사(試士)'는 선비에게 시험을 보인다는 뜻이다. 1792년 정조는 평소 존경하던 퇴계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서 과거시험을 열고 영남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시험 응시자만 7천여 명에 이르렀고 문과급제 2명 등을 선발하였다. 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이곳에 단을 마련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비문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이 지었다. 안동댐으로 수몰되기 전에는 도산서원과 마주 보이는 강변의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 비각이 세워져 있었다. 1975년 안동댐 건설 이후 원래 있던 자리에 10m 높이의 돌로 축대를 쌓아 올린 뒤 옛 건물과 비석을 원형대로 옮겨지었다.

\* 비각: 비를 세우고 비바람 막위를 막기 위하여 그 위를 덮어 지은 곳.

This place, known as 'Sisdan', includes a monument commemorating a special state examination and the pavilion that houses it. The name Sisdan means "a place to let Confucian literati take the civil examination."

In 1792, King Jeongjo (r. 1776-1800) commemorated the scholarship and Confucian morals of Yi Hwang (1501-1570), one of Korea's greatest Confucian scholars, by having a special state examination held in Andong where Yi Hwang had resided. Out of 7,000 candidates, only four passed: two attaining the highest grade, and two the preliminary literary grade.

Sisdan Monument and its protective pavilion were established in 1796 to commemorate this memorable event, and the text inscribed on the monument was composed by the chief state counselor Chae Jang-gong (1720-1799). In 1975, a new monument was made, and the pavilion was renov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Andong Dam in 1975, a 10 m-high stone mound was built underneath Sisdan to prevent it from becoming submerged by rising waters.

## 세계 유네스코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소개

인문학부 20211012 김가은

안동 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하회마을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흐트러짐 없는 공동체적 삶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0년 7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하회마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10가지의 등재 기준 중 씨족 마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잘 보여주며, 인류 역사의 단계를 나타내는 건조물, 건축적 경관의 탁월한 사례임을 인정받았다.

안동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등재 기준은 유네스코 등재 결의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양동은 주거 건축물과 정자(亭子), 정사(精舍), 서원(書院) 등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 방법 및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 시대의 사회 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sup>18)</sup> 이러한 전통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온전하게 지속되었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둘째, 문집, 예술 작품과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학술 및 문화적 성과물과 공동체 놀이, 세시풍속 및 전통 관혼상제 등 주민들의 생활과 신앙에 관계된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9)</sup>

유네스코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공간이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들의 삶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sup>20)</sup> 이는 하회마을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함께 공유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 자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瓦家)와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sup>21)</sup> 특히 조선 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 선생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선생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회(河回)라는 마을의 이름은 낙동강이 오른편 안동시에서 흘러나와 왼편으로 흘러가는 그 모양이 큰 ‘S’자로 마을 주변을 휘도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연화부수형·행주형에 일컬어지며, 이미 조선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했다.<sup>22)</sup>

하회마을의 아름다움은 마을 북쪽 암벽(부용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용대 앞에 펼쳐진 모래사장과 여유롭게 흘러내리는 강줄기 만송정이라 불리는 푸른 솔숲은 하회마을에서 빼 수 없는 장관이다.<sup>23)</sup>

하회마을의 집들은 수명이 600년이 넘는 마을의 가장 높은 중심부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데, 좌향이 일정하지 않다.<sup>24)</sup> 한국의 다른 마을의 집들이 정남향 또는 동남향

18)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등재 기준, <http://www.hahoe.or.kr/>, (2021.05.19.)

19) 위의 홈페이지, 등재 기준.

20) 위의 홈페이지, 유네스코 등재, <http://www.hahoe.or.kr/>, (2021.05.19.)

21)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http://www.hahoe.or.kr/>, (2021.05.19.)

22)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23) 김초록(2002),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 선비 정신이 살아 있는 안동 하회마을」, 『도시문제』(37권 399호), P. 80-81.

24)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며, 큰 기와집을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들이 원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sup>25)</sup> 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고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회마을 내부의 서원, 고가, 누각, 정사 등 다양한 전통 건축물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보물, 사적, 중요 민속 자료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하회마을 입구에 마련된 장승 공원에는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승 250여 개가 세워져있다. 장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고 험상궂은 표정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회마을의 정승들은 표정이 제각각이며, 익살적이면서도 품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sup>26)</sup>



풍산류씨의 안식처인 안동 하회마을에서 그들의 대종가였던 양진당은 대표적인 고택으로 손꼽힌다. 입암 류중영 선생의 호를 따서 입암고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7)</sup> 임진왜란 당시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17세기 중수하여 고려 말의 건축 양식과 조선 중기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고택이다. 하회마을에서는 드문 정남향의 집으로, 99칸 중 53칸이 남아 있다. 내부는 길게 이어진 문간채와

행랑채, 조선 건축 양식인 안채와 고려 건축 양식인 사랑채, 류중영 선생과 류운용 선생의 불천위 사당이 있다.

서원은 병산서원과 화천서원이 있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된 병산서원(屏山書院)의 경우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풍산류씨 가문의 서당인 풍악서당(豊岳書堂)을 전신으로 한다.<sup>28)</sup> 조선 선조대 서애 류성룡에 의해 풍산에서 병산으로 옮겨졌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후 서애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고자 창건한 존덕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칭 위상이 변화하여 철종대 사액 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을 통해 많은 학자를 배출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훼손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었다.

화천서원(花川書院)은 부용대 동쪽 기슭에 있다. 겸암 류운룡 선생의 학덕을 흠모한 유림들이 정조 10년(1786) 9월에 경덕사를 세워 선생을 봉안하였다.<sup>29)</sup> 그 후 순도 3년(1803)에 동리 김윤안 선생과 종손자인 졸재 류원지 선생을 종향했다.<sup>30)</sup> 이후 100여 년 동안 춘추로 향사해오다 고종 5년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보호된 병산서원과는 달리 강당과 주소만 남게 되었다.

25)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26) 위의 논문, p. 81.

27) 위의 홈페이지, 양진당, <http://www.hahoe.or.kr/>, (2021.05.20.)

28) 위의 홈페이지, 병산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29) 위의 홈페이지, 화천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30) 위의 홈페이지, 화천서원.

<안동 하회마을의 전체적인 지도와 하회마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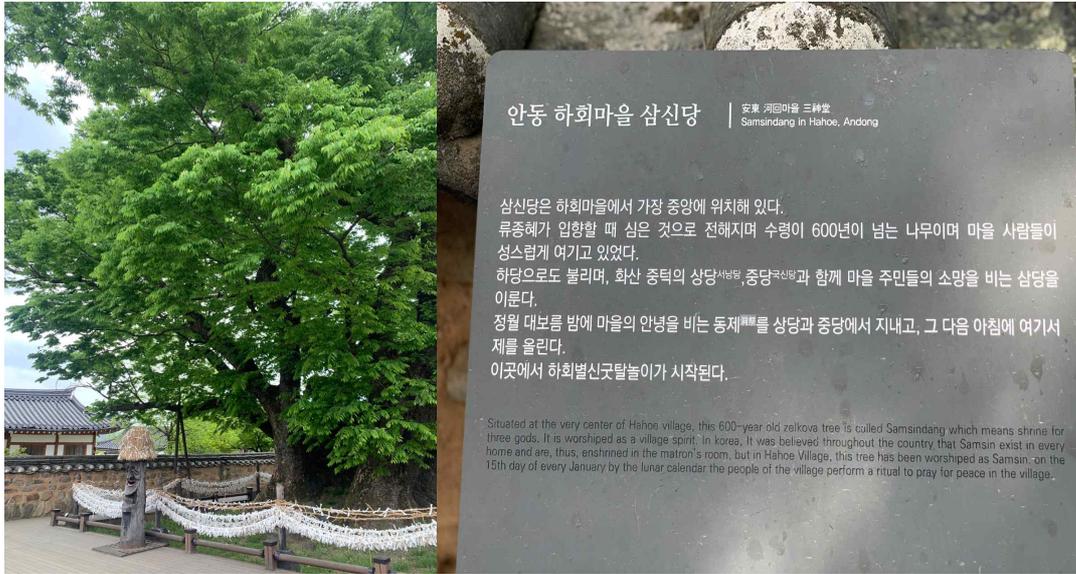
<하회마을 탈놀이 공연장 입구>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신비감을 자아내는 부용대>



## <매년 동제를 지내는 삼신당>



### 《참고문헌》

김초록, 2002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 선비 정신이 살아 있는 안동 하회마을』, 『도시문제』 37권 39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p.80-81.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등재 기준, <http://www.hahoe.or.kr/>, (2021.05.19.)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유네스코 등재, <http://www.hahoe.or.kr/>, (2021.05.19.)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마을 특징, <http://www.hahoe.or.kr/>, (2021.05.19.)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양진당, <http://www.hahoe.or.kr/>, (2021.05.20.)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병산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안동하회마을보존회, 화천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 풍자와 해학의 탈놀이 -하회별신굿의 기원과 내용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연희 되어온 탈놀이이다. 별신굿은 다른 마을에서 지내는 몇 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다 큰 굿을 치르는 것이 아닌, 하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별신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한 하회 탈춤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탈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그 기원은 고려 시대다. 12세기부터 하회마을에서 상민들을 통해 연희 되어온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굿의 하나로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서낭굿 탈놀이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조형성이 탁월한 신앙 가면으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서낭신의 신탁을 받은 광대와 주민의 참여로 놀이가 이루어져, 굿 놀이 자체가 탈놀이가 전개되었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허 도령 전설은 탈놀이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려 중기 때 하회마을에서 허 도령이 신의 계시를 받아 금줄을 치고 탈막 안에서 100일 동안 탈을 깎았다. 허 도령을 사랑하던 김 씨 처녀가 허 도령을 보고 싶은 열망을 견디지 못하고 금기를 어겨 탈막을 엿보았다. 그러자 마지막 탈인 이매탈을 깎고 있던 허 도령이 턱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이에 처녀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허 도령을 그리워하다 죽은 김 씨 처녀의 넋을 기려 서낭당에 동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당제를 올리고, 몇 해 만에 한 번씩 별신굿을 하며 탈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하회탈 제작에 얽힌 전설이자 하회별신굿의 유래이다.<sup>31)</sup>

하회별신굿 탈춤은 우리나라의 탈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중 생활의식의 반영으로 파계승과 양반계급에 대한 비방과 풍자, 서민 생활의 빈곤상 등을 다루고 무속과 불교 신앙, 권선징악의 테두리 안에서 호색과 현실폭로의 익살 웃음 등을 내용에 담고 있다.<sup>32)</sup>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놀이 마당은 무동 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 마당, 양반·선비마당으로 진행된다.

첫째, 무동 마당은 각시광대가 무동 타는 장면으로, 각시는 하회마을을 지키는 무진생 성황신을 상징하며, 신성한 존재로 등장한다.

둘째, 주지마당은 잡귀를 쫓는 벽사 의식무의 성격을 지닌다. 주지는 하회의 탈놀이나 예천 청단 놀음에 나타난다. 하회의 주지는 암수 한 쌍으로, 탈에는 납작한 목판 위에 열 개 정도의 꿩 털이 달려있어, 이것을 잡고 춤을 춘다. 주지의 의상은 전신을 덮는 거친 삼베 자루이다.

셋째, 백정마당은 백정이 소를 직접 도살하고 배를 가르고, 우랑 (쇠 불알)을 꺼내 정력에 좋다며 사라고 권유한다. 이때 양반과 선비가 서로 사겠다며 다툼을 벌이고, 할미가 옆에서 핀잔을 준다. 이것은 제의과정에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극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할미마당은 할미가 허리에 쪽박을 차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허리를 드러낸 채 등장한다. 이어 벼들에서 「벼들가」를 부르고 고달픈 삶을 한탄하며 벼를 찐다. 그리고 장에서 사 온 청어 열 마리를 자기가 아홉 마리 먹고, 영감에게 한 마리 주었다고 독백을 한 후에 객석에 다가가 쪽박을 들고 걸립을 한다. 할미의 인물적 특징은 걸립, 청어 분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할미의 걸립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고, 신을 위해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신성한 의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별신굿과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굿의 진행을 위한 준비 추렴의 성격을 가진

31) 임재해, 『하회탈 하회탈춤』, 지식산업사, 1999. p.52.

32) 조미정, 「하회 별신굿 탈춤과 강릉 관노탈춤의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25.

다.

다섯째, 파계승 마당은 부네가 등장하여 방뇨하고, 중이 이 광경을 엿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이 부네에 접근해서, 부네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 여성 방뇨의 의미는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여 남성을 유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체로 가면극에는 할미가 방뇨하지만, 하회에서는 젊은 부네가 방뇨를 한다. 여성 방뇨는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방뇨의 주체는 물을 다스리는 풍요신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여성의 방뇨몽 매매 설화, 지리산 천모신적 성모 설화, 거녀 설화인 선문대 할망, 기우제 때 여성 집단 산상 방뇨, 굿 놀이의 여성 방뇨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네의 방뇨는 풍요 기원의 생산의례 및 신성한 존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과 부네의 결합은 생산을 가져오는 신성한 결합인데, 후대에 비정상적 성적 노출과 여자에 의한 중의 파계로 본질이 변모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과 부네의 결합은 원래 의미가 퇴색되고, 세속화되었다.

여섯째, 양반·선비 마당에는 양반이 하인인 초라니를, 선비는 소첩인 부네를 데리고 등장한다. 초라니가 양반과 선비 사이에 수인사를 시키며 둘 사이에 끼어들어 대신 인사를 받으며 두 양반을 희롱한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는데, ‘사대부’를 ‘팔대부’로, ‘사서삼경’을 ‘팔서육경’으로, ‘문하시중’을 ‘문상시대’로 바꾸며 언어의 희롱으로 상대 공격을 일삼는다. 따라서 양반층의 대립에 의한 분화와 이에 따른 양반의 자기 비하가 나타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서 하인인 초라니는 재담과 몸짓에 의한 소극적 양반 언어 희롱에 머무르는데, 다른 가면극의 말뚝이처럼 상대의 신분을 거부하는 적극적 언어 풍자, 신체 가격, 신분의 전도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하회의 탈놀이가 문벌 집안인 풍산류씨의 집성촌에서 각성바지에 의해 전승되고, 정초에서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의 기간에만 탈놀이와 쇳소리를 허용한 곳에서 오는 마을 전승의 굿 탈놀이라는 한계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정초에 수시로 풍산류씨 집안에서 지신밧기를 하면서 양반 희롱의 탈놀이를 했다는 점은 마을의 양반층과 각성들의 상호이해에 의한 타협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3)</sup>

#### 《참고문헌》

임재해, 『하회탈 하회탈춤』, 지식산업사, 1999. p.52.

조미정, 「하회 별신굿 탈춤과 강릉 관노탈춤의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25.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하회별신굿탈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37>, (검색: 21.05.02)

33)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하회별신굿탈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37>, (검색: 21.05.02)

## 안동하회마을 하회탈

### -하회탈의 종류와 특징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

하회탈은 한국의 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탈이다. 하회탈은 한국 사람의 얼굴 모습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하회탈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그 안에 잘 담고 있는 한국의 국보이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문화적 유산이다.<sup>34)</sup>

하회탈은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을 합하여 각 신분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좌우를 비대칭으로 만들어 고정을 피하고 특성에 따른 알맞은 표정을 짓도록 만들어졌다. 하회탈이 세계적인 탈로 평가받는 요인은 턱을 인체 구조처럼 분리해서 대사전탈을 쉽게 하고 표정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다. 모든 하회탈은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 하회탈은 하회마을에 보관되어 오다가 1964년 국보로 지정되어 현재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하회탈의 종류는 양반탈, 부네탈, 각시탈, 선비탈, 할미탈, 초랭이탈, 백정탈, 이매탈, 중탈, 주지탈이다. 하회탈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먼저 그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던 중에 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이 하회탈을 맥타카드(Arther Joseph Mactaggart)교수에게 소개하여, 1954년 그 가치를 인정하여 해외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하회탈이 세계 제일의 가면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그 후에 국내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하여 국보로 인정하게 되었다.<sup>35)</sup>

별신굿놀이에서 사용된 탈 중 주지탈은 두 점이 남아 있고 인간을 표현한 탈이 아닌 짐승을 표현한 탈이다. 주지탈은 두 손을 잡고 탈놀이를 하는 탈이며, 어떤 동물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탈이다.<sup>36)</sup> 주지탈은 사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정체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나비 모양의 형상에 더 기울여지고 있다. 이 형상은 콜롬비아 인디언의 탈과 닮은 태극 나비 모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나비나 새 모양을 한 탈은 영혼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 구실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원초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주지탈의 힘으로 호랑이를 몰아내는 존재로 해석된다. 주지탈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선 주지라는 이름과 탈의 실체를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37)</sup>

하회탈은 각 역할에 따라 신분과 상징성이 다르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선 탈의 표정과 행동과 형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회탈 중 양반탈은 가장 신분이 높은 탈이다. 그래서 좌우 균형이 반듯하며 이목구비가 반듯한 편이다.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나타내는 양반은 지체가 높은 사람을 표현하므로<sup>38)</sup> 얼굴 바탕색은 주황색이며, 양 볼과 눈꼬리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혀, 실눈과 함께 웃는 표정으로 양반의 허풍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높고 날카로운 콧대를 지니고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턱을 연결하여 탈을 쓰면 입 모양이 사실적이다.<sup>39)</sup>

양반탈과 다르게 그의 하인 역할인 이매탈은 낮은 콧대와 좌우 부대칭을 통해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매탈은 흔히 바보 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매탈의 얼굴빛은 주황색으로 양반, 백정 가면과 같은 계통의 색이며, 눈은 실눈으로, 눈구석이 아래로 길게 처지고 이마와 볼의 주름살과 합쳐져 바보같이 웃는 표정을 보며 붙여진 별명이다.<sup>40)</sup> 그리고 이매탈은 하회탈의 유래 이야

34) 김응환 (2006).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회의. p.48-54.

35)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 [하회탈 \(hahoe.or.kr\)](http://hahoe.or.kr)

36) 이정근 (2020).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335-339.

3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지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38) 위의 논문. p.334.

39) 위의 홈페이지. - [양반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기인 허 도령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턱이 없고 콧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장애자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하회탈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역할은 할미탈이다. 할미탈은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구걸하는 모습으로 굿놀이에서 나온다. 할미탈의 전체적인 얼굴색을 검붉은 색으로 나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턱은 다른 탈들처럼 따로 연결하였다. 눈은 둥글게 뚫려있고, 미간은 깊이 파이고, 작은 코가 솟은 편이다. 초랭이탈과 함께 하회탈 가운데 턱이 움직이지 않는다.<sup>41)</sup> 할미탈을 하회탈 중 유일하게 콧구멍이 없으며 코에 살이 없고 뾰족하다. 할미탈은 사람이 늙으면 작아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회탈 중 가장 작은 탈이다. 왼쪽 볼이 오른쪽 볼보다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사람이 늙으면 얼굴이 작아지므로 하회탈 중 가장 작다.<sup>42)</sup>

각시탈의 각시는 갓 시집온 여성을 나타내며 머리 장식이 특이하다. 각시탈은 현재 왼쪽 부분이 깨쳐나가 오른쪽 머리채만 남아있다. 넓은 광대뼈에 입은 다물었고, 머리와 눈썹을 검게 칠했다. 얼굴색은 살구색 위에 분칠한 색이다. 연지곤지의 흔적이 남아있고 눈은 실눈이다.<sup>43)</sup> 각시탈은 셋째 마당에서 처녀역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탈과 달리 무거워 새색시의 수줍고 다소곳한 표정이 연출된다. 얼굴의 부대칭을 통해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와 남녀불평등에 저항한다는 것을 표현한다.<sup>44)</sup>

탈의 대칭 비례가 비대칭인 것을 표현하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색채를 통한 조형미를 통해 역할을 구분하였다. 높고 강한 계급일수록 강렬한 색을 사용했으며 낮은 계급일수록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하였다. 과장의 조형미로 탈의 표정을 강조할 수 있었다. 조화와 부조화의 만남을 통해 하회탈의 특성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였다.<sup>45)</sup>



위 사진은 위 왼쪽부터 초랭이탈, 부네탈, 각시탈, 할미탈, 이매탈, 양반탈, 백정탈, 종탈, 선비탈이다. 현존하고 있는 하회탈이다. 이 외의 탈로는 떡달이탈과 별체탈과 총각탈이 있지만, 현재 유실되었다.

40) 위의 논문. p.337.

41) 위의 논문. p.337.

42) 위의 논문. p.54.

43) 위의 논문. p.336.

44) 위의 홈페이지. - [각시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45) 위의 논문. p.339.



위 사진은 나무로 만들어진 하회탈이고, 왼쪽부터 할미탈, 양반탈, 각시탈, 중탈, 초랭이탈, 백정탈, 이매탈, 부네탈, 선비탈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하회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존할 수 있다.



위 사진은 실제 별신 굿놀이를 하는 것을 조각하여 전시한 것이고, 각시탈, 양반탈, 선비탈이다. 위 사진을 통해 별신굿탈놀이 속 각 역할의 의상, 표정, 행동 등을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별신 굿놀이 이외에 다른 탈놀이에서 사용하는 탈들을 전시한 것이다. 왼쪽부터 시작하여 은유탈놀이에 사용되는 은유탈, 강령탈춤에 사용되는 강령탈, 봉산탈춤에서

사용되는 봉산탈, 북청 사자놀이에서 사용하는 사자탈이다.

#### 《참고문헌》

- 김응환 (2006).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회의. p.48~54.  
이정근 (2020).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334~339.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 [하회탈 \(hahoe.or.kr\)](http://hahoe.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지탈 구성 및 특징.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한국콘텐츠진흥원. 양반탈 구성 및 특징.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한국콘텐츠진흥원. 각시탈 구성 및 특징.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http://culturecontent.com)

##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탈놀이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가치

국어국문학전공 20191018 김서연

우리 봉건사회를 이끌었던 유교라는 엄숙주의는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예속시켰다. 반면에 가면극 연행 주체들은 드러난 몸으로 사유하면서 민중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동질성을 이끌어 왔다. 그들에게 유교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잖은 품위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가면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능을 숨기지 않았다. 욕정을 참지 않고 바로 몸으로 실천한다. 욕정의 대상을 취하려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 오로지 그들은 몸의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축수를 드리우고 그런 몸의 움직임에 인생을 맡긴 것이다. 이런 인생들에게 도덕적 금기에 억눌려 살던 민중들은 환호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우리 가면극이 오랜 시간 전승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46)</sup>

그들은 공연되는 동안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마당판에 신을 모셔다가 예축하고, 상전을 불러놓고 모욕을 주거나 육체적 욕망을 불사를 때도 망설임 없이 판을 만들고 몸을 움직였다. 그곳이 장터 가설무대든 마을 당집 앞마당이든 별빛을 조명 삼아 무아지경 속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펼쳐 보였다.<sup>47)</sup> 가난과 소외로 점철된 질곡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과 어울려 놓고 박해와 죽음조차 두려움 없이 상대한 가면극의 무대는 자기 상실 속에서의 자기실현이라는 이념을 구현한 서로 주체성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기개를 펼쳐며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던 깨어있는 광대들이었다. 비록 얼굴을 가리고 활개를 쳤지만 가혹한 현실에 굴종하지 않았던 가면극 연행 주체의 놀이 정신은 생기 넘치는 생명력의 세계였고, 자유 정신이 충만한 세계였다.

이렇게 전승되어 온 별신굿 탈놀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구경거리이자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기원하는 기복(祈福)의 대상이었다. 나아가서는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약손과 같은 것이었다. 비록 제한적인 시·공간이었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부르짖음이었다. 별신굿이 열리는 기간에는 양반과 상민,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진 사회 틀 속 억눌림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별신굿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순간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없는 자, 눌린 자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폭발력이 있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출 수 있는 세상, 상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세상을 누릴 수 있었다. 비록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열린 세계였다.

하회별신굿은 탈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권위를 탈 잡아 비판하고 민중들의 억눌려 있던 숨구멍을 틔워주는 통풍구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신분 사회를 뛰어넘어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의 정신을 추구했다.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정신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원동력이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별신굿이라는 공동체 신앙 속에서 다양한 놀이와 예술적 행위를 담아낸 종합예술이었다. 양반과 상민 간의 갈등을 별신굿을 통해 완화하고 풀어내는 마을 구성원들의 대동축제였다. 이처럼 별신굿은 동제·당제와 달리 마을 주민들에게 역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전하고, 마을공동체의 단결을 꾀했던 '특별한 곳'이었다.

46) 이미원(2011), 『한국 탈놀이 연구』, 연극과 인간, p.74.

47) 허용호(2002), 「가면극의 축제극적 구조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36호, 한국민속학회, p.38.

현재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안동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민속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민족적 가치에 대한 재고, 문화 민족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학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농촌형 탈놀이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 1958년 제1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고, 1964년에는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하회 가면극 연구회가 결성되어 그 입지를 단단히 했다. 하회별신굿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표상의 기제는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면서 한 발 더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1980년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69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sup>48)</sup>

#### 《참고문헌》

- 이미원(2011), 『한국 탈놀이 연구』, 연극과 인간, p.74.  
허용호(2002), 「가면극의 축제극적 구조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36호, 한국민속학회, p.38.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회, p.69.

---

48)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회, p.69.

## 이육사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20211073 이정은

### -이육사

1904년 5월 18일(음력 4월 초 4일), 경북 안동군 도산면 원천동(당시 원촌동)881번지에서 차남으로 이육사가 출생하였다. 어릴 때 이름은 원록, 두 번째 이름이 원삼이었으며 스스로 활이란 이름을 지어 썼다. 자는 태경이고 육사란 그의 아호인데, 1927년 첫 번째 투옥에서 수인 번호를 취음해서 지었다고 한다.



육사가 태어난 원촌마을은 이웃 하계와 더불어 대단한 저항성을 보였고, 안동의 유학적 전통과 선비정신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그와 가족들은 어릴 적부터 항일에 대한 정신적인 틀을 지니고 자라났으며, 1925년에 형 이원기, 아우 이원유와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26년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귀국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이육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1930년 첫 시 <말>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시를 통해 자신의 항일의식을 드러냈고 1943년 6월 동대문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 이듬해 1944년 1월 16일 새벽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 -이육사문학관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길이 전하고 널리 알리는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에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며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흩어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곳에 모아 육사의 혼, 독립정신과 업적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그의 출생지인 원천리 불미골에 전시관(971.75m<sup>2</sup>), 생활관(497.28m<sup>2</sup>), 이육사 생가(90.72m<sup>2</sup>)가 지어 졌다.

1층 전시실에서는 이육사의 독립운동과 문학활동, 육사(17번의 수감)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고, 2층 전시실에서는 그의 생애를 주로 교육적 환경과 혈연적 관계를 통해 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나있다. 문학관에서는 매년 이육사 탄생을 기려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육사 백일장, 문학캠프, 육사의 밤, 기념 세미나, 시인의 육필전 등을 열고 있다. 전시관에는 시집, 연구논저와 비평문, 석·박사 학위 논문, 관련자료 및 단행본,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다.

탄신 100주년, 순국 60주기에 맞추어 2004년 이육사문학관을 개관하고 생가도 함께 복원하였다.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 이육사의 생애는 40년이 채 안 되는 짧

은 기간이었으나, 그가 남긴 자료와 기록을 한곳에 모아 육사의 혼, 독립정신이 업적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 -이육사 생가

경상북도 안동시 포도길 8(태화동 672-9)에 위치하고 있다.<sup>49)</sup> 1973년 8월 31일 경상북도 민속 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이며 애국시인 이육사의 생가로, 건축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홑처마 3량가(三樑架)의 一자집이며, 안채는 맞배 지붕, 사랑채는 팔작지붕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칸수와 칸 사이가 모두 같고, 방과 마루·부엌 등이 똑같은 공간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문은 내당과 외당의 동편 끝에 판벽을 늘어세우고 한가운데 문주를 세워 기와를 이었다. 대문 맞은편인 서쪽 끝에도 내당과 외당을 잇는 판벽이 있고 일각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뒤 一자집만으로 평행 배치하고 양쪽에 맞닿는 문이 있는 집은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원래 안동군 도산면에 있던 것을 1976년 4월 안동댐 수몰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겼는데, 안동 시내로 옮겨진 후에는 한쪽 일각문 자리에 대문이 서고 원래의 대문 자리는 이웃집 돌담이어서 담장도 대문도 없게 되었다. 후손인 이원종이 관리를 맡고 있다. 옛 집터에는 1993년에 청포도를 새긴 시비(詩碑)가 건립되었다.

## -작품

### <청포도>

내 고장 七月(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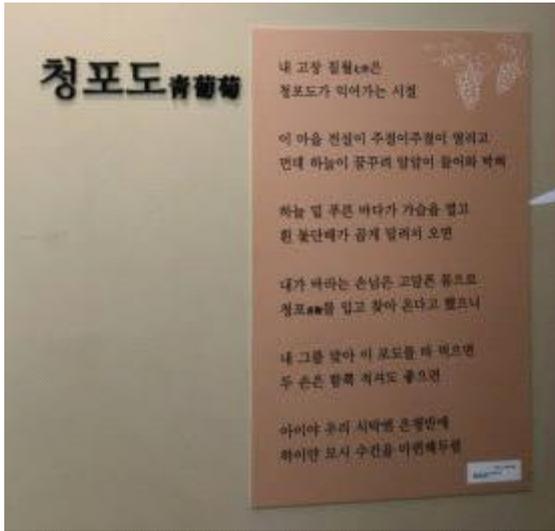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뻍 적셔도 좋으련

49) 이육사 생가는 원래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천동에 있었는데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현재 위치인 안동시 태화동으로 옮겨 왔다. 이 건 후 한쪽 일각문(一角門) 자리에 대문이 서고, 원래의 대문 자리는 이웃집 석축이어서 담장도 대문도 없다. 옛 집터에는 1993년 「청포도」를 새긴 시비가 건립되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의 대표시인 ‘청포도’는 1939년 ‘문장’<sup>50)</sup>지에 발표된 시로 이육사의 시 중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육사 본인이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한다. 전 6연으로 된 이 시는 시 속의 ‘아이’에게 말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제1연과 제2연의 현재이고, 나머지 연들은 미래의 일들이다. 나머지 네 연도 다시 두 연씩 짝을 이루고 있어 크게 세 부분의 의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sup>51)</sup>

‘청포도’가 익어 가는 것은 포도나무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는 과정이며, 먼 데 하늘이 꿈꾸며 포도 알로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과정

이다. 여기서 이 ‘청포도’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 ‘마을의 전설’과 ‘하늘의 꿈’이 결합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인 제3연과 제4연에서는 ‘이 말의 전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인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청포도<sup>52)</sup>를 입고” “흰 돛단배”를 타고 온다는 내용이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이므로 사전적 의미의 청포도는 아닐 것이다. 청포를 입은 바라는 손님이 올 때,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 정도라면,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한 영웅, 즉 독립군이 연상된다. 세 번째 부분인 제5연과 제6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시적 화자는 ‘마을의 전설’이 박힌 ‘청포도’를 따서 ‘은쟁반’과 ‘모시 수건’이 놓여 있는 ‘식탁’에서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의 청자인 ‘아이’에게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둘 것을 말하며 마무리된다.

이육사는 이 시에서 일제 통치 시기 암울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미래의 밝은 날을 기다리며 미래에 올 이상을 그려냈다. 새롭고 넉넉하고 남성적인 이육사시의 특질의 일부는 칠혹같은 암흑시대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역사는 항상 앞서가는 자만이 짓는 것이며 이것은 예술사회에 있어서도 또한 같은 것>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이라고 한 육사의 예술관과, 암흑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여 체념해버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방된 인간사회를 건설하려는 굳은 의지 및 실천적 정열에 기인하는 것이다.<sup>53)</sup>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이고, 청포도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이육사는 곧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50) 1939년 2월에 창간한 순 문예지. 이태준의 주간으로 발행된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예지로서, 작품 발표와 고전 발굴 및 신인의 배출과 양성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신문학사(新文學史)에 큰 공적을 남겼으며 1941년 4월에 폐간되었다.

51)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52) 조선 시대에 사품·오품·육품의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으로 입던 푸른 도포

53) 김영무, 「시와 현실인식 - 李陸史의 詩」, 『창작과 비평』, 1975. pp203-204.

## <교목>

푸른 하늘에 다들드시  
세월에 불라고 웃둑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날근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안이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춤내 湖水(호수)속 깊이 꺾우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1940년 ‘인문평론’<sup>54)</sup>에 발표된 이육사의 시 ‘교목’은 독립에 대한 이육사의 결연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교목’은 줄기와 가지가 곧고 굵게 높이 자라나는 나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소나무가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와 같은 교목을 통해 굳은 의지와 자세를 형상화 하였다. 또한 ‘교목세가’, ‘교목세신’ 등의 말이 있어 ‘여러 대를 현달한 지위에 있으며 나라와 고락을 같이한 집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sup>55)</sup> 그렇기에 이 시에서의 교목 또한 암담한 시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와 고락을 같이하려는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 3연으로 구성된 ‘교목’은 크게 1연에서 과거, 2연에서 현재, 3연에서 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1연의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이다. 고된 세월에 불타더라도 교목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남아 서 있다.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일제의 지배라는 암담한 현실의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향해 곧게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강한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봄도 꽃피진 말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피우지 않는 꽃에는 부정적인 세월 속에서는 행복조차 찾지 않고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독립지사의 자세가 서려있다. 2연에서 화자는 ‘날근 거미집’을 휘두른 현실과 끝없는 ‘꿈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꿈길을 걷기로 하며,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절대 뉘우치지도 후회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독립을 향한 마음은 3연에서의 간절함으로 실현된다.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바람’에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는 ‘교목’을 화자 자신에게 투영했다. 1연의 ‘봄도 꽃 피진 마라’는 2연의 ‘뉘우치지 않는 것’과 상응하고 다시 3연의 ‘바람도 흔들지는 못해라’와 상응하며 이육사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sup>56)</sup> 이러한 시 속에서의 그의 강경한 태도는 강한 어조와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극대화 되었다.<sup>57)</sup>

이육사는 ‘시도 하나의 행동’<sup>58)</sup>이라고 하며 시인과 시의 일체감을 구현하였고, 시를 쓰는 행위는 행동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을 버려내며 일제 지배를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갈등을 더 단단한 의지로 승화하여 비로소 죽음에 대한 결의를 보이는 시 ‘교목’을 통해 독립 투쟁이라는 행동을 고스란히 투영하였다.

54) 1939년 10월에 창간한 월간 순수 문예지. 최재서가 편집하고 발행한 문예지로, 작품 활동과 비평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1941년 4월에 폐간되었다.

55) 신웅순, 「이육사의 시인 정신 - 「절정」과 「교목」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408.

56) 윤석영, 「1930-40년대 한국현대시의 의식지향성 연구 : 윤동주·이용악·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p.75.

57) 윤영천 「육사시 소고.-」, 한국의 유민 시, 1987

58) 신웅순, 「이육사의 시인 정신 - 「절정」과 「교목」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409.

## -문학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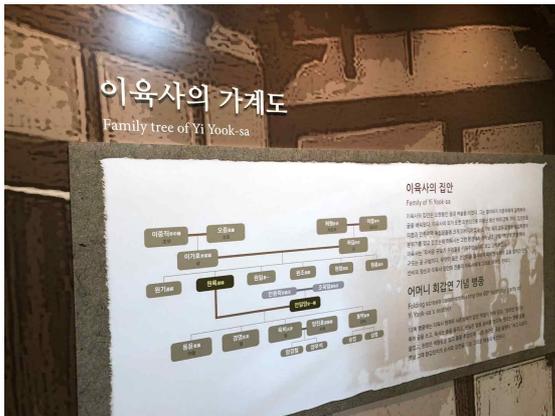
이육사는 문단의 어느 유파에 가담하여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시인들에 비하여 비록 36편(한시 3편 포함)에 불과한 소수의 시작품을 남겼으나 한국 현대 시사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육사는 1930년대에 풍미하던 모더니즘의 도식성에 반발하여 인간의 생명 존중의 시세계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시의 감동을 회복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냉철한 역사의식으로 저항의식, 망국의 비애 그리고 가치 지향적 세계인식 등을 시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정서를 민족 보편의 정서로 확대하여 시적 감동을 유발하여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육사의 시는 한국 현대시에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풍모를 남겼다. 한국 현대 시사에서 이육사 당대 시의 흐름은 여성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육사의 경우는 강렬한 부사어의 사용이나 영탄법의 사용, 광활하고 역동적인 시어의 구사, 당당한 어조의 사용, 강직한 선비 정신의 표현 등을 통해 의지적 남성주의, 대륙성 그리고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 주었고 한국시의 여성적 특질을 개혁하여 시적 공간을 확대한 점에서 당시대적 시의 유행을 극복한 의의를 가지며 그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육사 시의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는 죽음을 초월한 저항 정신과 시를 통한 진정한 참여의식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도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평가 받는다. 이육사가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때는 독립 운동가로 시의 저항 활동이 왕성하던 시기로 그의 시에는 관념성, 서정성, 민중적 혁명 의지가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투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인을 열망하고 그 열망을 시로 형상화하여 진정한 저항 방식을 보여 준 것이다.

이육사라는 이름에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의 강한 독립 의지와 시인으로서의 예술성, 조국을 빼앗긴 망국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누구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다. 변절과 절필을 일삼았던 문학적 암흑기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부족함 없는 시로 승화시킨 이육사와 그의 시는 우리 문학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하상일, 「이육사의 사회주의사상과 비평의식」, 한국민족문화, 2005
- 김희곤,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4
- 이동영, 「이육사의 독립 운동과 생애」, 나라사랑, 1974
- 김영무, 「시와 현실인식 - 李陸史의 詩」, 창작과 비평, 1975. pp203-204.
-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0
-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2, 91~180면.
- 이육사, 김용직, 손병희 편,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 윤영천, 「육사시 소고.-」 『한국의 유민 시』, 실천문학사, 1987.
- 조창환, 『이육사 - 투사의 길과 초극의 인간상』,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 윤석영, 「1930-40년대 한국현대시의 의식지향성 연구 : 윤동주·이용악·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 조영식, 「이육사 시와 그 역사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학회, 1993.
- 신웅순, 「이육사의 시인 정신 - 「절정」과 「교목」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허균, 허난설헌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9 박유진

인문학부 20211026 김재중

### -허균의 생애

허균은 1569년 음력 11월 3일에 강릉 초당동에서 군수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초당 허엽과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 예조참판 김광철의 딸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의 기억력은 비상하였다. 5세 때부터 형 허봉의 벗인 손곡 이달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9세 때 이미 묘사를 잘하여 시를 잘 지을 줄 알았다. 10세 이전의 소년기에 글을 잘 지어서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외로움을 달래려 더욱 시문 공부에 전념하였다.

첫 스승인 이달은 둘째 형 허봉의 벗으로서 당시 원주의 손곡리에 살았는데 그에게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4세 때인 1592년, 임진왜란을 피하던 와중에 부인 안동 김씨와 함께 단천으로 피난했으나, 부인은 사망하고 첫 아들도 전란 중에 사망한다. 가족을 잃은 허균은 이후 집필에 몰두했는데 외가 애일당 뒷산의 이름을 따서 호 교산을 사용한다. 1594년, 그의 나이 26세에는 정시문과 을과에 합격하였다. 1599년, 황해도사에서 파직되었다. 1604년, 스승 손곡 이달의 문집인 손곡집(蓀谷集)을 엮었다. 1612년에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저술한다. 『홍길동전』은 조선 초 실존한 인물인 도적 홍길동을 동기로 하여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1613년 칠서지옥과 계축옥사가 일어났다. 1618년 반역을 도모하던 중 체포된 현응민과 연루되었던 정황이 밝혀져 허균의 계획이 드러났고 역적이라는 죄목으로 그의 심복들과 함께 능지처참형을 당해 생을 마감한다.

4년 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때의 역적은 구명되었으나 허균은 광해군 당시의 역적이자 인종의 입장에서, 인목대비 폐모를 주장한 역적으로 구명되지 않았다.

### -작품

허균의 대표작으로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나 한문 소설 남궁선생전 등이 있다.

### -홍길동전 줄거리

판서 벼슬을 하는 양반 홍문과 노비 출신의 첩 춘삼 사이에서 홍길동이 태어난다. 길동은 비범함이 남달라 영웅호걸이 될 만한 아이였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신분이었다. 어느덧 여덟 살이 된 길동은 모두에게 칭찬 받는 아이였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였다.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명예나 수치를 잊고 살 결심을 한다. 길동은 하염없이 걷다가 산속에서 도적 떼의 소굴을 발견한다. 마침 길동이 도착한 날이 두목을 뽑는 날이었고, 시험에 통과하여 도적 떼의 우두머리가 된다.

홍길동이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소동을 피워도 잡을 재간이 없었다. 결국 나라에서는 길동의 형인 길현을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하여 길동을 잡아 오라고 명한다. 길동을 잡을 길이 없자 결국 임금의 요구대로 길동을 병조 판서에 임명한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 30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성도라고 하는 섬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요괴에게서 세 여인을 구하고 세 사람을 모두 부인으로 맞았다. 세월이 흘러 길동은 아버지 흥 대감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길현과 유씨 부인과 어머니를 만나서 못 했던 이야기를 나눈다. 성도 근처에 울도국이라는 나

라가 있었는데 새 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길동은 울도국을 정벌하고 울도국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한 다음 왕의 자리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

당대의 사회문제를 다루며 저항 정신이 반영된 현실 참여적 문학으로 사회 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이다. 내용상으로는 저항 정신이 반영된 평민 문학으로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등 후대의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는 국문 소설의 효시가 될 수 있다.

### -허난설헌의 생애

허난설헌은 본명은 초희, 자는 경번, 호는 난설헌이다. 조선의 여류 시인으로, 1563년, 강릉 초당리에서 초당 허엽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8살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짓고 명문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며, 손곡 이달에게 한시를 배웠습니다. 15세 무렵,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과 혼인을 하게 되었으나, 과거 시험에 신경을 쏟는 남편의 무심함과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고 1588년, 오빠 허봉의 요절로 우울한 나날들을 겪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일찍이 죽고 유산까지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친정 집의 옥사와 동생의 귀양으로 비극이 연속되었다. 1589년 자신의 시를 없애 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생전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다고 알려졌으나 허난설헌의 유언으로 모두 소각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허균이 친정에 있던 작품들을 편집하여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주었고, 1606년에 중국에서 허난설헌의 시집 난설헌집이 간행되었다.

### -작품

유일한 산문인 ‘광한전백옥루상량문’과 ‘감우’와 같은 수 많은 시들이 있다.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1570년 허난설헌이 8세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유일한 산문으로, 허균이 공주 목사로 재직하던 1608년 4월에 간행한 목판본 “난설헌집”에 덧붙여 실려 있다. “난설헌집”에는 시만 실려 있으며, 산문은 이 상량문 1편뿐입니다. 상량문이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며 행하는 상량의식에 쓰이는 글을 뜻한다.

허난설헌은 신선 세계에 있다는 광한전 백옥루의 상량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이 글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난설헌은 신선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되어 이처럼 속세를 벗어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말하자면, 첫 부분에는 광한전 주인의 신선 생활을 묘사하고, 그가 여러 신선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광한전을 짓게 된 배경을 묘사했다. 이 모임에 수십 명의 신선들이 동원되고 여러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지만, 상량문을 지을만한 시인이 없었기에, 허난설헌이 초대되어 이 상량문을 짓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광한전이 신선 세계에서 오래 있기를 원하며 끝이 난다.

### -작품세계

여류 문인 허난설헌의 작품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크게 호평받았으나, 당대 조선에서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규중 여인이 시를 짓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또한, 허균의 작품이라는 위작 시비도 자주 있었다. 난설헌의 작품은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표절 혐의를 두거나,

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허난설헌은 이 상황을 창작으로 승화시켰고 그녀의 작품세계는 크게 선계와 관련된 작품, 애정에 관한 작품, 저항적 작품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주제는 허난설헌이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즉 결핍의 요소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허난설헌은 힘든 상황을 현실을 초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했다.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식이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답사 지역과 인물들의 연관성 :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과 허난설헌의 생가터는 조선 시대에 초당 허엽이 살던 곳으로 허난설헌이 태어나고 허균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널찍한 사랑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네모나게 지어진 본채가 있으며, 본채는 두 개의 대문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갈리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 내외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난설헌의 동상 앞에 난설헌이 자식을 잃고 쓴 시 '곡자'가 새겨져 있고 동상의 뒤쪽 초당숲 초입에는 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헌, 허균을 의미하는 허씨 5문장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허균과 허난설헌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 공원으로, 시설로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전통차 체험장, 녹지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봄가을에 교산 문화제와 난설헌 문화제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난설헌 문화제 행사는 강릉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난설헌 다례제 행사가 열린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허균 [許筠] - 조선중기 사회모순을 비판한 문신 겸 소설가 (인물한국사, 이근호, 장선환)
- [네이버 지식백과] 허균 [許筠]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허균 [許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홍길동전 - 번쩍번쩍! 통쾌한 세상 뒤집기 (역사로 통하는 고전문학 - 세상을 뒤집다, 홍길동전, 2012., 이영민)
- 강명혜 ( Myeong Hye Kang ). "문학 : 허난설헌 작품의 미학적 특성." 溫知論叢 0.43 (2015): 33-61.
- 김명옥, 박혜숙. "허난설헌 인물이야기 전승 양상 - 어린이 책에서의 '인물형상화와 구성'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0.93 (2012): 375-402.
- 강명혜 ( Myeong Hye Kang ). "논문 : 허난설헌, 윤희순의 현실 대응 방식 및 스토리텔링." 溫知論叢 0.30 (2012): 137-172.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광한전백옥루상량문
- 이철희(Lee Cheol-hui). "『난설헌시집』 수록 산문 2편의 저자 및 저작 시기에 대한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58.- (2021): 345-398.
- 강릉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
- 이혁진 ( Lee Hyuk Jin ), 신애경 ( Shin Ae Kyung ). "강원도 강릉의 문화관광콘텐츠 활용 방향에 관한 연구 -주요 역사인물과 관련 장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1 (2018): 63-78.

## 한용운과 백담사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1879년 7월 12일 충청남도 흥성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유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어린 유천은 선비 집안 출신들이 거의 그러했듯이 일찍부터 한문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는 아이로 이름이 났으며 칠 세 때 벌써 유학의 정수인 대학(大學)을 읽고 정자의 주를 가지고 서당 선생과 논쟁을 벌였다. 남보다 앞질러 학문을 통달한 그는 18세에 선생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익히고 가르치는 동안에 가난한 명분 속에서 허례허식만 일삼는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그는 동년배 선비들이나 학동들에게 '상투 자르고 바깥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여 어른들의 눈총과 동료들의 경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참상에 의분을 느껴 오던 차 충남 땅을 휩쓸던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탐관오리를 징벌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반항적인 행적은 관가의 지목을 받게 되고 집안 어른들의 권유도 있고 하여 설악산으로 은신하기도 했다.

오세암의 은신생활 이후 그는 점점 전통적 유교의 가정과는 멀어지고 불교에 관심이 기울어졌다. 그가 답답한 시골을 떠나서 출세의 뜻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고 일하자.'고 결심한 유천은 서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당시 이름 높던 오대산 백담사의 연곡스님을 찾아갔다. 불가에 인연이 있었던지 드디어 식발위승하고 그가 27세 되던 해에 연곡스님으로부터 법호를 '용운'이라 하고 계명을 '봉안'이라 부르는 중이 되었다.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百潭寺)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백담계곡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647년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조성 봉안하였다. 창건 후 1783년에 이르러 백담사로 개칭하였다. 사찰 이름은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서 절을 세운데서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백 가지 사상이 담겨 있어서 백담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백담사와 오세암에서 만해의 행적을 찾아보면, 32세에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였으며, 39세 12월 3일 밤 10시경 오세암에서 좌선 중 바람에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오도송'을 남겼으며, 47세에 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와 '님의 침묵'을 탈고하였다.

만해의 생애는 근현대 전쟁사의 한 복판을 관통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는 두드러지게 평화를 모색하고 말했던 인물이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놀랍게도 이 모든 전쟁이 만해의 생애와 겹쳐져 있다. 이 전쟁 한 가운데서 그는 평화 사상을 다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3·1독립선언, 신간회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 사회활동과 문예활동, 또 승려로 활동하면서 제국주의에 맞섰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낸 백담사는 만해의 청소년기 이후의 가치관을 확립해줬다.

만해의 가치관은 그의 생애가 어느 한쪽에 전부가 걸 수 없고, 양쪽 혹은 여러 쪽을 모두 살펴야 하는 삶이었다는 경계성에서 비롯된 것 같다. 관군과 동학,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생명'임을 통찰했고, 이에 반하는 모든 것에 항거했다. 어쩌면 만해에게 백담사는 삶의 일부이며, 더럽고 흐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 같다. 59)

59) 한용운의 평화사상/1980/PG 255-277

## 독립을 위해 싸운 승려, 한용운

-한용운의 생애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결성면(結城面) 성곡리(城谷里)에서 부친 한응준(韓應俊)과 모친 온양 방씨(溫陽 方氏)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정옥(貞玉)이고 아명은 유천(裕天), 출가 이후 받은 법명은 용운(龍雲), 법호는 만해(萬海, 卍海)이다. 한용운은 6세 때부터 향리 서당에서 10년 동안 한학(漢學)을 익혔으며, 14세 때 고향에서 성혼의 예식을 올렸다.

한용운은 '나는 왜 중이 되었나.'라는 그 자신의 술회대로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하여 처음에는 절의 일을 거들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출가 직후에는 오세암에 머무르면서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선(禪)을 닦았다. 이후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은 나머지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였다.

한용운은 1905년 재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百潭寺)에서 연곡(連谷)을 은사로 하여 정식으로 득도(得度)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교학적(敎學的)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특히 한문으로 된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 즉 불교의 대중화 작업에 주력하였다.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논저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그 해, 한일합방이 되면서 국권은 물론, 한국어마저 쓸 수 없는 피압박 민족이 되자, 그는 국치의 슬픔을 안은 채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으로 갔다. 이곳에서 만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우리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1918년 월간 『유심 惟心』이라는 불교잡지를 간행하였다. 불교의 흥포와 민족정신의 고취를 목적으로 간행된 이 잡지는 뒷날 그가 관계한 『불교』 잡지(국가등록문화재 782호)와 함께 가장 괄목할 만한 문화사업의 하나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 백용성(白龍城) 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그는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둘러싸고 최남선(崔南善)과 의견 충돌을 하였다.

한용운은 1926년 한국 근대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 이곳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7년 일제에 대항하는 단체였던 신간회(新幹會)를 결성하는 주도적 소임을 맡았다. 그는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京城支會長)의 자리를 겸직하였다. 나중에 신간회는 광주학생의거 등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 추진되었다. 1930년 『불교』라는 잡지를 인수하여 그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전까지는 권상로(權相老)가 맡아오던 이 잡지를 인수하여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승려의 자질향상·기강확립·생활 불교 등을 제창하였다.

한용운은 1944년 6월 29일 성북동의 심우장(尋牛莊)에서 중풍으로 별세하였다. 동지들에 의하여 미

아리 사설 화장장에서 다비된 뒤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골이 안치되었다.

《참고 문헌》

“한용운(韓龍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853](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853).

## 한용운의 사랑을 외치는 시

-한용운, 「님의 침묵」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리끝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뿔뿔이 찢어져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님의 침묵」 전문

「님의 침묵」의 첫 번째 단락은 상황의 진술이고 두 번째 단락은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대응이다. 1~5행까지는 부재·이별·절망 등이 계열을 이루어서 한 단락으로, 5~10행까지는 존재·만남·희망 등이 계열을 이루어 나머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별(正)에서 고통→희망(反), 그리고 만남(습)으로 전개되는 불교적 변증법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만남과 헤어짐, 헤어짐과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는 생성과 소멸의 변증법의 한 반영이면서 불교적인 윤회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는 ‘님’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상인 ‘님’의 정체는 읽는 사람에 따라 조국·민족·불타·애인·친구 등 다양성을 갖는다. 어떤 외부적 요소를 텍스트 내부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님’의 정체는 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 의미에서 ‘이별→고통·슬픔/희망→만남’의 구성원리는 사회적·공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권상실→고통·슬픔/희망→국권회복’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님의 침묵」이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저항시의 성격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별과 만남 또는 소멸과 생성을 축으로 한 변증법적 갈등과 그 지양을 통해서 작가가 새롭고 빛나는 정신의 승리를 성취한 예가 바로 「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님의 침묵」은 “님은 갔습니다”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마지막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역설적 긍정으로 변주된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 시는 산문시의 형식을 통해 ‘님’이 떠나가는 상황을 생생한 감각과 서사로 충분히 재현함으로써 이 시가 목표하는 일련의 변증법적 변화에 힘을 실어, 시적 논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참고 문헌》

“님의 침묵(一沈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3399>.

김나래. (2019). [님의 침묵] 에 공존하는 문체와 형식에 대하여-한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9), 225-257.

이강하. (2009). 만해 한용운의 〈님의沈黙〉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 *한국현대문학연구*, 28(), 35-60.

## 백담사의 모습과 한용운 관련 기념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76 이은지



### <백담사>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흘러온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 계곡 위에 있어 내설악을 오르는 길잡이가 되고있다. 신라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자장을사가 세웠는데 처음은 한계사라 불렸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백개 있어 백담사라 이름 붙였다. 십여차례 소실되었다가 6. 25동란 이후 1957년에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는 등 역사적

곡절이 많은 절이다. 자장율사의 유물소동일좌와 인조 때 설정대사에게 하양한 칠층소형옥탑 등이 있으며, 암자로는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이 있다. 그 밖에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1879~1944)이 머리를 깎고 수도한 곳으로 유명하다. 만해 스님은 민족과 국민을 위해 그곳에서 민족의 얼을 되 살리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집필을 하였다면, 전두환 전대통령 부부는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참회를 하였다 한다. 백담사 앞 계곡 한쪽으로는 무수한 돌탑이 있는데, 백담사를 다년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쌓은 것이다.



<만해기념관>

1997년 11월 9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내에 개관하였다. 한용운이 불교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저술한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원전을 비롯해, 《세계지리》·《영환지략》·《음빙실

문집》 등의 책, 한용운의 유묵과 시집 《님의 침묵》 초간본·각종 판본, 1962년 수여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한용운 연구논문 등이 전시되어 있다.



<만해 한용운 생가터>

\*답사 지역과 관련이 없으나 작가의 생가이기에 첨부하였음

충청남도 기념물 제75호.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생가가 쓰러져 없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초가집이며 서향이다. 그 양옆으로 1칸을 달아 내어 광과 헛간으로 썼고 울타리는 싸리나무로 만들었다. 바깥에는 흙벽돌로 화장실을 만들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메모장】**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